

NEWS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40년 숙원 해소... 전남도, 새 김 활성처리제 보급

내일 이대통령 임명식 국민대표 80명이 임명장 수여

광복 80주년을 맞는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인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가 열린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국가 주요 인사와 주한외교단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체육, 과학기술, 교육, 노동, 여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함께 참석한다.

그간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초청된 국민 3500명도 참석해 열린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행사는 모두 3부로 구성됐다. '함께 찾은 빛'을 주제로 열리는 1부에서는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광장에 모여 함께 빛을 발했던 순간 불렀던 노래들이 광화문광장에 울려 퍼진다.

또 광복 80년 기념 프로젝트 그룹 '투데이'가, 가수 이은미 씨의 국민화합을 위한 무대가 펼쳐진다.

2부 '빛의 바람'에서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이 '국민의례', '주제 영상 상영',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임명식', '빛을 밝혀라'의 순서로 진행된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전하는 바람을 소개하는 '국민의 바람'에 이어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이 거행된다.

임명장 수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히 선정된 국민대표 80인이 맡게 된다.

국민대표 80인에는 탄핵 시위 때 장갑차를 막으며 국민주권을 지킨 부부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한 국군대전병원 이국중 원장, 위기 때마다 국민 안전을 지켜온 구조대원들, 제7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최초 학생 부문 1등 상을 받아 문화강국의 이름을 높인 영화감독 허가영 씨가 포함됐다.

또 2002년 한일월드컵 대표팀 수석코치로 임명된 박정서 감독,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바둑기사 이세돌 씨,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등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해 각지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이웃들이 참석해 임명식의 의미를 더하게 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국민대표들은 각자의 바람과 소망을 담은 임명장을 이대통령에게 수여한다.

국민 임명식에 이어서는 '빛나는 우리'라는 이름으로 3부 행사가 진행된다. 광복 80년 및 국민임명식을 축하하며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마당이 마련된다. 국민임명식에 앞서 15일 오전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경축식도 거행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파래·요각류 등 제거 탁월...친환경·비용 절감 효과 국회서 개발 완료 성과 보고회...어업인 의견 수렴도

전남도는 13일 국회에서 지난 3년간 연구·개발해 완성한 신규 활성처리제를 어업 현장에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국회의원, 관계기관, 어업인 등에게 설명하는 신규 김 활성처리제 개발 완료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신규 김 활성처리제는 김 양식 어업인

의 40년 숙원 해소를 위한 것으로, 기존 김 활성처리제보다 △파래·요각류 제거 △균 억제 등 병해충 방제 △유해물질 부착 방지 △작업시간 단축 등이 개선됐다.

특히 기존활성처리제에 비해 산 성분을 절반으로 줄여 친환경적이고 처리비용도

절감돼 어업인의 기대가 크다.

신규 김 활성처리제는 국내의 특허 출원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했으며, 2025년산 김 생산 시기, 대규모 현장 적용 시험(4개 시군 1100ha)을 통해 130명이 직접 사용, 개발 제품의 효능을 검증했다. 성과보고회에선 개발 경과와 성능 평가 결과 발표, 제품 사용 방법 설명, 어업인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또한 해양수산부 '김 활성처리제 사용 기준' 고시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 생산 어업인은 지난 2년간 양식 현장에서 신규 김 활성처리제를 사용한 결과 "무기산 사용량의 절반 정도라도 효능이 충분하고, 작업이 편해서 상당히 만족한다"며 "올해 김 양식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량 공급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때부터 김 생산 어업인들에게 무기산을 대체할 김 활성처리제 개발을 약속했던 것을, 도지사 취임 이후 관련 예산을 세워 마침내 어업인 40년 숙원을 해결하

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와 수협이 힘을 모아 무기산을 대체할 효과 좋고, 안전한 신규 김 활성처리제 개발에 성공한 만큼, 조속히 고시가 개정돼 올해 김 양식 시기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김 산업을 더 크고 탄탄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 수출단지 조성 등을 포함한 케이-김(K-GIM)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금남지하사가 빛나는 아이나라 개관 13일 광주 동구 금남지하사가 시·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빛나는 아이나라 개관식'에 참석한 임택 동구청장과 내빈들이 어린이집 원생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이 대통령 장차관급 인선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금융위원장 이익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들 포함해 6개 부처·기관장 자리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최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년을 교육계에서 지낸 교육전문가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과 균형발전지원 자원위원을 역임하며 지역균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된다.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예정이다.

원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이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발탁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를 위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0곳에 대한 차관급 인선도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영수 문화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을, 2차관에는 김대현 전 문체부 중무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조달청장에는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통계청 차장이 각각 승진해 자리를 채웠다.



최교진, 원민경, 이익원. 농촌진흥청장에는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이, 기상청장에도 이미선 전 수도권기상청장이 선임됐다.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는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처장이 이름을 올렸다. 산림청장으로는 김인호 환경교육혁신 연구소장,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는 김인호 전북북부대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장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 대통령 23~24일 방일...한일 정상회담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 등 의견 나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방일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역대 평화·안정,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서울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와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질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영부인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체제 중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 대통령과 회담하고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관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라선, 호남선보다도 분당 0.4km 더 느려" 김문수 "전라선 복선화·중편 시급"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사진)은 13일 "전라선이 호남선보다 평균 분당 0.4km, 시속 약 24km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라선 복선화와 중편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목포를 연결하는 호남선은 1분당 2.57km 속도를 달리지만, 서울-여수를 잇는 전라선은 2.17km에 그쳤다.

두 노선의 거리 차이는 불과 15.8km(호남선 353.2km, 전라선 369.0km)지만, 소요시간은 전라선이 33분이나 더 길다. 속도뿐만 아니라, 호남선은 하루 57회(상행 28회, 하행 29회) 운행되지만, 전라선은 34회(상행·하행 각 17회)에 그쳐 23회나 적다.

배차 간격이 길어지고 시간 선택권이 제한돼, 명절·관광 성수기나 산업 물류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기차표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김 의원은 "여수·광양항, 광양제철소, 석유화학단지 등 국가 핵심 산업시설과 순천만국가정원, 여수 밤바다, 지리산 등 국내외 관광지가 몰려 있는 전남 동부권이 철도 소외로 이동권과 지역 발전 모두 발목 잡히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선 복선화는 속도 향상과 운행 횟수 증대를 위한 필수 조건이며, 사업 착수 전이라도 즉각적인 증편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전라선 복선화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곡성 모듈러 주택단지 / 휴인 설계·시공

대한민국 탄소중립에 바탕 세팅을 준비한다

휴인주식회사
HUIN Co., Ltd

문의 및 상담 Tel. 061-271-5777 / 062-945-0036~7

공학목재(구조용 집성목재) 제조·공급하는 지역기업입니다.

국내 KS 인증서
(구조용집성목재)

국내 신기술 인증서
(합판교 CLT)

내화구조 인증서
(기둥, 벽체, 바닥)

- 목조건축 상담 및 설계지원
- 건축구조재(CLT) 신기술 인증 보유 기업
- 내화구조 1시간, 2시간 인증
- 구조용 집성목재 생산·시공(KS인증 보유)

집성목재 생산 및 납품

화순 - 지류센터 목구조 골조

화순 - 지류센터 목구조 설계지원 및 시공

www.huin.kr